

# 백팩 메고 캠핑카 타고 떠나자...활기 되찾은 예능물

거리두기 해제...스튜디오 벗어나 야외 예능물 늘어나  
백종원, 출장요리사로 컴백...나영석표 여행예능 기대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예능물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국내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은 백신 접종 시 자가격리가 면제돼 여행 예능물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추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스튜디오를 벗어나 야외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외식사업가 백종원은 출장요리사로 돌아온다. 다음 달 26일 첫 방송하는 tvN '백패커'다. 백종원과 함께 탤런트 안보현, 오대환, 래퍼 단딘은 백팩 하나 메고 떠나 출장 요리를 선보인다. 장소, 손님도 생소한 현장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대량의 음식을 만든다.

백종원의 tvN 예능물 복귀는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시즌2(2019)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세계 각 도시 맛집을 소개하며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풀었다. 이번엔 tvN '현지에서 먹힐까' 시리즈(2018~2019) 이우형 PD와 손을 잡았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해외 촬영 제약이 있는 만큼, 국내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며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전망이다. 이 PD가 요리사 이연복에 이어 백종원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지도 관심이 쏠린다.

나영석표 여행 예능물도 기지개를 편다. 배우 윤여정과 함께 '뜻밖의 여정'을 떠난다. tvN '뜻밖의 여정'은 윤여정이 한국인 최초로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후 이야기를 전한다. 다음 달 8일 첫 선을 보이며, 지난달 제 94회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시상자로 무대에 오른 모습과 LA에서의 일상 등을 담은 예정이다. 나영석 PD의 '페르소나'로 불리는 탤런트 이서진도 함께 한다.

그 동안 나 PD는 국내외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행 예능물을 선보였다. 스타들이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요리하는 모습 등을 통해 힐링을 줬다. 2020년 초 '윤식당' 시즌 3을 선보일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발목을

을 잡았다. 해외 촬영이 어렵게 되자, '윤식당' 시즌1·2(2017~2018) 출연진과 '윤스테이'(2021)를 꾸렸다. 한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외국인 손님을 대상으로 요리했다. 게스트하우스 콘셉트로 숙박 옵션도 추가했지만,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는 데는 한계가 따랐다. 뜻밖의 여정은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 회복 기대감이 커진 상황 속 시청자들에게 반가움을 안길 전망이다.

배우 임채무와 이문식은 캠핑카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 의료봉사를 떠날 예정이다. 지난 24일 첫 방송한 ENA '임채무의 낭만닥터'에선 충북 제천의 상천 산수유마을에 일일진료소를 여는 모습이 그려졌다. 탤런트 지성원과 정형외과 전문의 이태훈도 함께 했다. 이들은 도서산간 주민들에게 건강과 영양 관련 도움을 주고, 캠핑요리를 위한 재료를 제공 받았다. 임채무는 "음식은 잠샘이 났을 때 제일 맛있다"며 산나물 파스타에 도전했다.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자연 풍경과 요리 등이 어우러져 힐링을 선사했다.

타빙 '서울체크인'은 확장 가능성을 열었다. 서울체크인은 '서울에서 스케줄을 마



친 이효리는 어디서 자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갈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한 콘텐츠다. 1월 말에 파일럿으로 공개, 호응을 얻어 정규 편성됐다. MBC TV 예능물 '무한도전'(2006~2018) 김태호 PD가 연출했다. 특히 이효리와 김광민, 엄정화, 보아, 그룹 '마마무'



화사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소소한 재미를 줬다. "코로나19가 일상화 된다면 버스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관객들을 만나자고 약속했다"며 "서울체크인 확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부산, 제주도, LA, 베를린 등을 넣어도 된다"고 해 기대감을 높였다.

## 트와이스, 도쿄돔 3회 공연 15만명 운집

K팝 걸그룹 처음...일본 도쿄돔 연속 공연 성료



아티스트 사상 데뷔 후 최단기간 도쿄돔 입성이라는 기록을 쓴 트와이스는 도쿄돔 3회 연속 공연 및 매진을 달성한 '첫 K팝 걸그룹'으로서 막강한 인기와 입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트와이스의 도쿄돔 콘서트는 24일 공연을 일본 전국 47개 도도부현, 140여 개의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라이브 뷰잉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좌석이 매진되며 약 2만 명의 관객들에게 현장의 열기를 전달했다. 또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 NTT도코모가 운영하는 플랫폼 dTV에서도 동시 생중계되기도 했다.

3회 공연을 마무리하며 막내 쯔위는 "여러분들이 트와이스의 팬인 것을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저희를 이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 공연 종료 직후에는 오는 7월 27일 네 번째 정규 앨범 '셀브라이트(Celebrate)'를 발매한다고 예고했다. 올해로 일본 정식 데뷔 5주년을 맞이하는 트와이스는 '축하'를 의미하는 앨범명과 동명인 타이틀곡을 통해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JYP는 "이번 신곡은 멤버들이 직접 가사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JYP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이 작사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 이중석 '빅마우스' MBC서 만나요...7월 첫선

이중석 주연 '빅마우스'가 베일을 벗는다. 26일 제작사 에이스토리에 따르면, MBC TV 금토극 '빅마우스'는 7월 첫 선을 보인다. 애초 tvN 편성을 논의했으나, MBC에서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중석의 군 전역 후 복귀작이다. 이 드라마는 승률 10% 생계형 변호사 '박창호'(이중석)가 우연히 맡은 살인사건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전재사기꾼 빅마우스가 되는 이야기를 그

린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음모로 얼룩진 특권층 민낯을 파헤친다. 그룹 '소녀시대' 윤아는 장호 부인인 간호사 '고미호'로 분한다. '배가본드'(2019) 장영철·정경순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한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2017) '스타트업'(2019) '호텔델루나'(2020) 오종환 PD가 연출한다. 김주현과 옥자연, 양경원, 박동연 등도 힘을 실는다.

뉴스

## 남녀 우정, 리얼 연애 예능으로 종결?...'나대지마 심장이'

6월 방송 확정, 최근 촬영 돌입

남녀 사이에 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연애 예능이 찾아온다. 채널S 신규 리얼리티 예능 '나대지마 심장이'(가제)가 6월 방송을 확정짓고 최근 촬영에 돌입했다.

'나대지마 심장이'는 채널S 신규 예능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이성 친구 간에 순수한 우정이 존재하는지, 혹은 사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대국민 XY 난제 해결 프로젝트'다. 직장, 학교, 다양한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돼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남사친과 여사친 커플

들이 출연한다. 10일간 합숙을 하면서 서로의 감정 변화를 낱알이 보여줄 예정이다.

이들 남사친·여사친은 경남 통영의 '프렌드 빌리지'라는 한 공간에서 10일간 합숙 생활을 한다.

또 '투 두 리스트'(To do list·해야 할 일 리스트) 등 여러 활동을 함께 하는 한편, 자신의 남사친과 여사친이 다른 이성과 있을 때 그날의 최대 심박수도 공개한다.

아울러,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변화하는 감정의 수치를 '러브 페라미터'라는 당구장 점수표 같은 장치를 통해 보여주면서 흥미로운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제작진은 "남녀 사이의 최고 난제인 남사친·여사친이 가능한지, 이 희대의 난제를 리얼



예능을 통해 풀어보려 한다. 최근 첫 녹화에서 이번이 속출했다. 새로운 초현실주의 리얼 연애 예능의 탄생을 기대하셔도 좋다"고 전했다.

### 조국 사태 다큐 '그대가 조국' 편당 3시간만에 100% 달성

목표액 5000만원 넘겨 2억원 돌파...전주국제영화제서 첫 공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이 크라우드 펀딩 시작 3시간만에 목표액 100%를 달성했다고 제작사 켈빈클레인프로젝트가 26일 밝혔다.

전날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 '그대가 조국'은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 목표액인 5000만원을 넘겨 약 2억원 후원을 받고 있다. 펀딩을 하면 전국 8개 도시에서 열리는 시사회에 초대받을 수 있고, DVD·포토북도 준다.

또 극장 개봉 이후 진행되는 '그대가 조국' VOD 서비스 및 DVD 서비스에 진행되는 디지털 배급 버전 본편 상영본에 펀딩 참여자의 이름이 크레딧에 표기된다.

기금은 시사회 대관료, DVD제작비, 포토북 제작비, 디지털 배급버전 마스터 작업비 등에 쓰인다.

'그대가 조국'은 2019년 8월9일 당시 문재인 정부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고, 조 신임 법무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10월14일까지 벌어진 일들을 담은 작품이다.

연출을 맡은 이승준 감독은 "이 영화는 '조국 사태'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며 "언론과 검찰 권력이 덧씌운 프레임 그리고 지위 버린 질문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전국 극장 개봉 전 이달 말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먼저 공개될 예정이다. 영화제 공개 날짜는 다음 달 1일이다.

## '금쪽같은 내 친구' 유인나, 남다른 공감 능력

'관계 문답'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리얼 관계 토크쇼

배우 유인나의 남다른 진행 실력으로 'MC의 정식'으로 활약하고 있다.

유인나는 25일 방송된 5회 '금쪽같은 내 친구' 편에서 출연진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며 진심 어린 공감을 건넸다.

유인나는 영상 속 어머니와 'OX 퀴즈'를 하던 김재경이 "엄마와 단둘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X'를 택하자 "저도 똑립했다가 잠시 부모님과 같이 살아봤다"고 운을 뗐다. 그는 "왜 다시 나왔겠어요?"라며 공감을 표한다.

그러면서 "끼니를 제때 먹지 않으면 '평소에

도 그랬냐'라며 걱정해서서 마음에 걸리더라"라는 말로 현장에 있던 모든 이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유인나는 시청자가 궁금해 할만한 질문을 던져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주변에 단 한 명도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는 허니제이에게 "용기를 못 낸 분들이 계속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대시를 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을 던져 허니제이를 환호케 했다.

이어 김재경에게는 "남다른 엄마의 교육법을 느꼈던 또 다른 일화는 없을까요?"라고 물



어 게스트들이 이야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다.

한편, 파일럿 예능 '우리 사이'는 사적인 관계에 놓인 출연진이 '관계 문답'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리얼 관계 토크쇼로 월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